

농생명산업 중심 도시 도약 기대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돌입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R&D) 기능을 집적화하고, 산업 전·후방 연계를 강화해 전북자치도 농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안군 농생명산업지구(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는 진안IC 맞은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 진안읍 단양리 일원(7.3ha 규모)에 조성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31억 원을 투입해 4개 핵심 분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의 4개 주요 분야로 구성된다.

△명품홍삼 유통·판매시설(160억원) 관내에 분산된 홍삼 판매장을 한 곳으로 집약해 총 25개소 판매장과 함께 전문음식점, 카페 등 부대시설을 갖춘 오감 체험형 문화타운으로 조성된다.

△K-홍삼 전시홍보체험관(80억원) K-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시·홍보 뿐만 아니라 체험까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명품홍삼 가공·물류단지(88억원)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돌입했다. 사진은 조감도.

스마트 제조·가공시설과 저온저장 시설 등 물류 중심 인프라로 구축되며, 인삼 전처리시설(APC), GMP 인증 홍삼가공시설, 자재물류창고 등이 포함된다. 기획 생산과 고품질 제품 다각화를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가공 연구지원(5억원)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침체된 홍삼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에 혁신 역량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2018년에 착수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부지 조성사업이 올 연말 완료

를 앞두고 있어, 2025년 착공해 2027년까지 주요 시설을 준공하고, 판매장 일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진안 IC와 집적화단지를 거쳐 마이산 북부를 연결하는 연계 도로가 2027년 완공되면, 마이산 관광객 유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진안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홍삼 산업의 집적화와 고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농생명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진안군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혁신 산업 중심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흑염소협회 한마음대회 개최

진안 마이산북부관광단지 일원서 17일 염소산업 발전 모색

제1회 전북흑염소협회(회장 전영기) 한마음대회가 오는 17일 진안 마이산 북부관광단지 일원에서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염소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전북흑염소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축산신문, 한국축산환경지식기계협회, 무진장축협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도 단위 규모로는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로 전북흑염소협회 회원 및 전국 흑염소산업 종사자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염소 품평회와 시식회, 축산기자재 전시회, 회원 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협회 회원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한마음대회에서 진행될 흑염소 품평회는 협회에 소속된 11개 시군의 우수 흑염소 사육농가가 참여해 뛰어난 육질과 생산성을 자랑하는 흑염소들을 한자리에 모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흑염소를 선발할 계획으로 사육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흑염소 품종 개량의 중요성을 알리는 장이 될 예정이다.

또한 염소고기 시식회를 통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염소구이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염소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축산기자재 전시회는 스마트 축산 시스템, 자동화 장비 등 최신 축산 기술과 혁신적인 기자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염소 농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 회원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회원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행사 분위기를 한층 북돋을 예정이다.

전영기 회장은 "이날 행사는 협회 회원과 염소산업 종사자들이 다함께 모여 화합을 다지고, 흑염소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염소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염소고기가 국민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에서는 도내뿐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내방객들에게 진안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내방객들이 불편함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백운면 행복주택 준공식 개최

진안군은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한 '행복주택'이 백운면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

군은 12일 백운면(백암리 680-1)일원에서 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운면 이장단, 기관·사회단체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백운면 행복주택은 도비 및 특교세 등 총사업비 약 51억 원을 들여 조성한 12세대 규모의 공공임대형 다가구 주택이다. 농촌유학 가족,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정주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주 인구 유입과 함께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오는 7월 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 절차에 들어설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청춘 아지트리움·청년 쉼어하우스 준공

진안군은 12일 우하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청춘 아지트리움' 및 '청년 쉼어하우스' 준공식과 함께 진안군 청년센터 '월랑'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동창욱 군의장, 군의원, 전용태 도의원, 이양희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을 비롯해 청년단체와 지역주민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행사



와 테이프커팅 및 시설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청춘 아지트리움' 및 '청년 쉼어하우스'는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우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안읍 우하길 7 일원에 조성됐다.

시설은 관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을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임영 장병 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

무주군이 7월부터 '임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임영지원금(4. 17. 조례 제정)은 병역의 의무에 임하는 대상자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영지원금 지급 대상은 임영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임영통지서(발급일 2025년 6월 1일 이후)를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1회 한도)이 지급된다.

신청은 임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임영 전까지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분증과 임영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만전

부서별 대응 상황 점검·현장 확인 강화

무주군이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회의를 통해 올여름 기상 전망과 인명과 시설,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관리지역, 저수지 등 재해우려 지역(919곳)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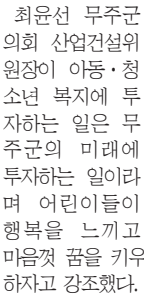
무주군은 공동주택 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현황 및 배수 관리 상태를 확



무주군은 지난 9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회의를 통해 올여름 기상 전망과 인명과 시설,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아동 놀 권리 보장 위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최운선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례 발의



최운선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 아동·청소년 복지에 투자하는 일은 무주군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어린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마음속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를 건설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운선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제 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놀 곳을 찾아 키즈카페나 놀이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다니는 점을 개선하고 무주군이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직접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을 건립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 명시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뛰어놀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보호자 휴



무주덕유산리조트, 장학금 전달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지역 내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무주 살천면 내 저소득가구 대학생 2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000만 원의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1년에 총 40명을 선정해 상·하반기에 나눠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2005년 부터 21년째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연간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

과 액수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지금까지 540여 명의 지역 인재들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장학금 지원과 함께 희망나눔 캠페인 참여, 명절 불우이웃돕기, 사랑나눔 성금, 이웃돕기 성금, 사리의 물품 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대전서 귀농귀촌 정책 적극 홍보

진안군은 12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 귀농·귀촌 찾아가는 전북 귀농귀촌 설명회'에 참여해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며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해 도내 6개 시군이 참가했다.

진안군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군의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도시민과의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군은 설명회 현장에서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활동과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비롯해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 임시 거주시설 운영, 주거 임차료 및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관심 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재난안전통신망 상환전파 훈련 실시

장수군은 12일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IS-LTE)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환전파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새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훈련에는 장수군을 비롯해 장수소방서, 장수경찰서, 장수수의료원, 7733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재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여름철 극한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을 가정한 진행됐으며,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각 기관별 대응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훈식 군수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전파와 유관기관 간의 대응 협력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실전 훈련을 지속 실시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어르신 대상 결핵 무료 이동검진 실시

장수군은 12일 산서면 관내 경로당 4개소를 방문해 65세 이상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장수군 보건의료원과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가 협력해 이동형 검진차량과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문진과 흉부 X선 촬영을 통해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객담검사까지 추가로 실시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결핵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검진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